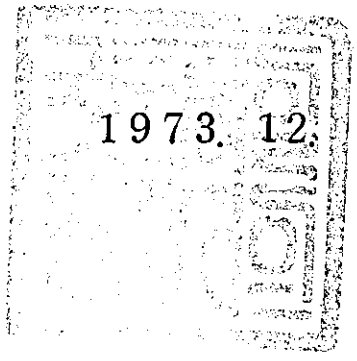
7·4 共同聲明이 統一에 미치는 影響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에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2.

研究機關 : 釜山大學校 統一問題研究所

研究責任者 : 夫 雲 鳳

目　　次

序　言 3

第 1 章　7.4 共同声明의　統一指向的　比重과　背景 5

第 1 節　7.4 共同声明의　必要性 5

第 2 節　南・北共同声明의　内容 7

第 3 節　統一政策과의　函数関係 8

第 4 節　南・北調節委員会의　展望 10

第 2 章　経済政策面에서　본　共同声明 17

第 1 節　7.4 声明의　経済的側面에서　본　意義 17

第 2 節　南・北経済의　相互　補充効果 22

第 3 節　北韓의　貿易実態 25

第 4 節　南・北物資交流의　可能性　検討 27

第 3 章　南・北赤十字会談의　回顧 31

第 1 節　우리의　提議 31

第 2 節　南・北赤十字会談의　그간의　成果 34

第 3 節　産苦끝에　本会談議題　確定 36

第 4 節　앞으로의　問題와　展望 40

第 4 章　統一政策에　미친　影響 43

第 1 節　理念과　統一 43

第 2 節　韓半島　緊張緩和에는　寄与 49

第 3 節　南・北関係의　展望 50

序　　言

分断 27年만에 처음으로 南北対話의 길이 열렸다.

自由的이고 平和的인 統一을 이룩하겠다는 韓国의 오랜 期間동안의 努力이 이제 겨우 그 햇빛을 보게된 것이다.

지난 1972年 5月2日 우리 朴正熙大統領은 極秘裡에 李厚洛中央情報部長(当時)을 北韓 平壌으로 派遣하여 金日成 金英柱등과 만났으며 그뒤 北韓의 朴成哲이 서울을 다녀감으로써 緊張緩和를 摸索하려는 우리의 主導的 努力의 結果로서 南北의 対話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으며 統一을 為한 몇가지 原則에 意見의 一致를 보게 되었다.

72年 7月4日 서울과 平壌에서 同時에 発表된 南北共同声明은 南北対話의 첫 結実이며 "8·15宣言" 以後 朴正熙大統領이 一貫性을 가지고 提示해온 平和統一의 構想이 北韓에 依해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는 実証이기도 하다.

이제 우리는 "対話없는 対決"에서 "対話있는 対決"의 段階에 突入했으며 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서로 다른 体制下에서 善意의 競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平和競争 体制에 있어서 가장 重要한 것은 民主主義에 대한 確固한 信念이며 競争에서 이기기 為해서는 国民総和를 実現하는 것이다. 国論을 統一하여 内実을 期하고 또 対話가 万若의 境遇 断絶될 것에 対備하여 総力安保의 体制로써 完璧을 期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곧 対話를 成功的으로 이끌어 가는 捷径이요 南北対話에 臨하는 韓国国民의 올바른 姿勢라 할 것이다.

第1章 7.4共同聲明의 統一指向的 比重과背景

才1節 7.4共同声明의 必要性

南北共同声明은 우리의 能動的인 提案에 依해 그 結実을 보았다. 우리에게 自由性과 自信이 없었더라면 南北共同声明이라는 歷史的인 結実을 가져오지 못했을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韓国은 왜 南北共同声明이 나올때까지 主導的 役割을 해 왔나. 이것은 무엇보다도 祖国의 平和的 統一을 達成하려는 朴正熙大統領 領導下의 우리의 自信에 찬 意志에 달려 있는 것이다.

朴大統領은 이미 1970年 8月15日 歷史的인 〃8·15宣言〃을 낸 뒤에 分断된 民族의 悲劇을 解消시키고 祖国의 平和統一을 摸索하기 為해 恒常 自主的인 立場에서 能動的으로 統一案을 찾기 為해 黙黙히 努力해 왔든 것이다.

朴大統領은 〃8·15宣言〃에서 南北韓의 어느 편이 国民에게 自由로우며 보다 나은 生活을 할 수 있는 体制인가를 善意의 競争으로써 立証해 보자는 劃期的인 提案을 냈었다. 이야말로 解放後 25年간 동안에 그 어느 指導者도 해보지 못했던 自信에 찬 自主的인 態度表明이었다. 그뒤 만1年 지난 昨年 8月12日 韓国의 大韓赤十字社의 提案으로 南北 離散家族을 찾기為한 南北赤十字의 予備会談이 열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韓国의 能動的이고 積極的인 平和追求를 為한 꾸

준한 努力에도 不拘하고 北韓의 如前한 過熱된 戰爭準備는 韓国의 安全을 威脅하는 하나의 불씨로 되어가고 있었다.

北韓은 所謂 4大軍事路線의 追求로서 全国土의 要塞化, 全軍의 幹部化 裝備의 現代化. 全人民의 武裝化등으로 戰爭準備를 完了하고 単独 速戰速決의 態勢를 갖추고 있었다. 朴正熙大統領은 이에 対処하여 平和的으로 南北이 接近하여 統一의 길을 摸索하기 為해서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戰爭의 危險이라는 불씨를 꺼 없애는 措置를 먼저 取하지 않을 수 없었다. 즉 平和追求를 積極的으로 推進하기 為해서도 한편으로는 韓国의 安保体制를 強化하여 北韓의 無謀한 南侵企図를 막지않으면 안되었든 것이다. 非常事態를 宣言하게 된 緣由도 여기에 있는 것이었다.

平和統一을 바라는 우리의 自由的이고도 能動的인 姿勢와 함께 総力安保 体制를 強調한 非常事態 宣言은 統一에의 強力한 意志와 戰爭抑制라는 두개의 民族的 使命을 表示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南北共同声明을 나오게 한 背景이라고 할 수 있겠다.

韓国이 非常事態의 어려운 試練을 克服하는 속에서 朴正熙大統領은 国家가 나아가야 할 遠大한 計劃을 設計하여 自身과 力量을 바탕으로 한 指導者로서의 卓越한 英断을 내림으로써 歷史的인 南北対話의 길을 열어 놓은 것이다.

南北対話에 대해 北韓側이 誠実한 態度를 取하고 戰爭아닌 平和와 繁栄의 統一祖国을 建設하는 契機로 삼는다면 南北共同声明은 韓民族의 歷史에 劃期的인 功績으로서 기리 남을 것이다.

才 2 節　南北共同声明의 内容

① 統一은 外国의 힘에 依支하거나 他民族의 干渉을 받지 않으며 韓民族 스스로의 意志와 힘으로써 達成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韓民族은 서로 思想이 다르고 社会制度가 다를지라도 이것을 超越하여 먼저 하나의 民族이라는 것을 認識하여 民族의 大団結을 굳혀야 한다.

② 南北은 各各 一触即発의 対立状態를 緩和하고 서로 信頼할 수 있는 雰囲気를 造成하기 為하여 相互 誹謗하거나 非難하지 말것이며 어떠한 境遇에도 武力을 使用하지 않으며 突発的인 行動으로써 軍隊가 衝突하는 事故를 予防하기 為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할 것에 合意하였다.

③ 断絶되었던 民族間의 連絡과 関係를 다시 回復하고 相互의 理解를 敦篤히 하여 民族 스스로의 힘에 依한 平和統一을 早速히 推進하기 為해 南北間에 諸般 交流와 往来를 하기로 合意했다.

④ 双方은 現在 全民族의 큰 期待속에 進行되고 있는 南北赤十字会談이 早速히 그 成果를 올릴 수 있도록 積極的으로 協助하는 것에 合意했다.

⑤ 双方은 突発的인 軍隊間의 事故를 防止하며 南北사이에서 일어나는 問題들을 直接, 迅速, 正確하게 処理하기 為해 서울과 平壌間에 언제든지 使用할 수 있는 直通電話를 架設할 것에 合意했다.

⑤ 双方은 以上의 合意事項을 推進시켜 祖国의 統一問題를 解決할 目的으로 李厚洛部長과 金英柱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

調節委員会를 構成하여 運営할 것에 合意했다.

⑦ 双方은 이러한 合意事項이 祖国統一을 一日千秋의 생각으로 기대하고 있는 全民族의 한결같은 念願에 符合될 것을 믿고 이 合意事項을 誠実히 履行해 나갈 것을 全民族 앞에 厳粛히 約束한다.

以上이 共同声明의 大体의 内容인데 이中 実務的이며 節次的인 事項을 除外한다면 새로운 것은 없다. 모두가 朴正熙大統領이 훨씬 前에서 부터 主張한 提案과 같은 内容이다. 結局 平和統一을 為한 朴正熙大統領의 계속적인 努力이 結実을 봤다는 点에서 南北共同声明의 意義와 成果는 매우 크다고 하겠다.

才3節 統一政策과의 函数関係

合意된 統一原則은 韓国이 継続 取해온 基本統一方針과 実質的으로 다를바 없으며 또 그것에 変質을 가져올 것도 아니다. 南北共同声明에서 밝히고 있는 自主平和統一原則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外勢에의 依存이나 外勢의 干渉없이 自主的으로 統一이 이루워 져야 한다는 것은 自主的으로 統一에의 努力을 하지않고 成算도 없이 外勢에 依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不当한 外勢의 干渉에 依해 自主的 統一努力을 抛棄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人口比例에 따른 国聯監視下의 総選挙와는 韓国의 統一政策에 대해서도 国聯은 外勢가 아니므로 自主的方

法에 依한 韓国의 統一基本政策에는 아무런 変化도 없는 것이다. 다음 平和的 統一方法이 強調된 것도 韓国의 基本方針과 一致하는 것으로서 問題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超越하여 民族的으로 大団結을 図謀한다는 것은 같은 白衣民族으로서 分断된 悲哀를 打開하여 統一에 対한 民族의 念願을 政治的으로 表現한 것이다.

따라서 平和統一에의 意志에 바탕한 韓国의 統一政策을 보다 現実的으로 補充한 것이라 하겠다.

이때까지 韓国政府는 反共을 国是의 方一로 삼아 強力한 反共政策을 堅持해 왔다. 現在 비록 共産主義者와의 対話의 길이 열렸다 해도 6·25 動乱을 일으켜 같은 民族이 피를 흘리는 悲劇을 가져온 共産主義를 받아들일수는 없는 것이요 그것을 許容할 수 없다는 基本立場에는 変함이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 不倶戴天의 共産主義者와의 対話를 나누게 되었는가 그것은 統一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民族의 悲願과 戰爭의 惨禍에서 民族의 生命과 財産을 지키겠다는 意志가 너무나 切実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즉 〃思想과 理念 制度의 差異를 넘어서 먼저 하나의 民族으로서의 民族的 団結을 図謀해야 할〃 것에 共同声明의 趣旨와 同一한 点이 있다.

対話를 하는 것이 共産主義를 받아 들이는 것이 아님을 明白히 認識해야 할 것이다.

才4節　南北調節委員会의　展望

南北共同声明이　発表됐다고　해서　祖国의　統一이　目前에　다달은　것은　아니다.　또　南北의　対話가　始作되었다고　해서　韓半島에　지금　당장　平和가　온　것도　아니다.

南北共同声明은　250 km　休戦線을　가운데　두고　極度로　高潮된　緊張状態를　解消시키고　戦争의　惨禍를　막겠다는　民族의　対話가　始作된　곳에　그　意味가　있다.　몇차례의　対話를　通해서　緊張을　緩和시킬　것에　合意하고　自主的　平和統一의　原則과　이를　推進하기　為한　몇가지의　方法에　関해　意見의　一致를　본데　不過하다.

이제　祖国統一을　為한　南北間의　対話는　始作되었다.　〃対話없는　対決〃,〃軍事的　対決〃을　避하고　〃対話있는　対決〃　〃善意의　対決〃을　指向하는　새　時代에　접어들었다.　理念과　思想이　다른　〃自由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両体制　間의　그야말로　어려운　対話가　始作된　것이다.

이　南北간의　対話가　韓民族의　最大의　念願인　祖国統一을　遂成하는　꿈을　実現시켜　주느냐　아니면　結実을　보지　못하고　다시　対話가　끊어진　〃軍事対決〃의　時代로　되　돌아가느냐　하는　問題는　아무도　予測할　수　없다.

南北共同声明을　通해　서로가　굳게　約束한　바와　같이　〃大小간의　武力挑発을　하지않으며　不測의　軍事的　衝突事件을　막기　為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하고〃　〃南北間에　多才面的인　諸般交流를　実施〃하고　〃南北赤十字会談이　하루라도　빨리　成功하여　〃李厚洛　中央情報

部長과 金英柱 組織指導部長을 共同委員長으로 하는 南北調節委員会가 円滑히 運営되어 自主 平和統一을 為한 南北간의 約束이 誠実히 履行된다면 統一에의 길은 한결음 가까워 진다. 그러나 南北의 어느 한쪽이 約束을 지키지 않는다면 統一에의 길은 막히고 만다.

여기서 우리는 統一을 為한 朴正熙 大統領의 一貫한 執念과 提案을 돌이켜 볼 必要가 있다.

멀리까지 遡及할것도 없이 1970年 8月15日 朴正熙 大統領은 北韓이 武装게릴라의 南派등 모든 戰爭挑発行為를 即刻 中止하고, 所謂 武力에 依한 赤化統一이나 暴力革命에 依한 大韓民国의 顚覆을 企図했던 従来의 態度를 完全히 抛棄한다는 点을 内外에 宣言하고 行動으로써 実証한다면 南北間에 가로놓인 人為的 障壁을 段階的으로 除去해 나가겠다는 意思를 밝히고 "開発과 建設과 創造의 競爭"에 나설것을 提唱했다. 이러한 平和統一의 構想을 朴正熙 大統領은 機会있을 때 마다 一貫性있게 提示해 왔으며, 지난 3月의 陸軍士官学校 卒業式에서도 平和統一을 為한 5個項 先行条件을 提示한 바 있다.

이러한 点으로 미루어 볼때 北韓이 共同声明의 約束을 어느程度 誠意를 가지고 履行했으며, 또 統一을 為한 対話에 臨하느냐에 달아 事業 成敗의 열쇠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南北의 諸政党과 社会団体 代表者들로써 会談을 열어 統一選挙를 実施하기로 提案해 놓고는 채 20日도 안가서 6·25動乱을 일으킨 일이나, 休戰協定에 調印한 以来 이때까지 1万件을 넘은 協定

違反 事件을 저질른 것. 또 1962年 以来로 所謂 〃4大 軍事路線〃을 採択하고 北韓 全域을 要塞化하는 등 戦争準備에 狂奔해 온 北韓이 果然 誠実과 誠意를 가지고 南北共同声明에서 約束한 諸般努力을 傾注해 줄 것이냐의 与否에 全民族의 関心과 期待가 集中되어 있다.

祖国의 統一은 分断 4半世紀 동안을 一日千秋로 渇望해 온 民族全体의 피어린 念願임을 생각할 때 韓国側은 무엇보다도 北韓이 誠意를 가지고 対話에 臨해 줌으로써 民族의 念願을 저바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結局 南北対話의 앞날은 지나친 悲観도 必要없으며 또 너무 楽観하여 垂手傍観하고만 있을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性急한 感傷的 統一論議에 빠져서는 안되며 冷徹한 判断으로 이 民族이 나아가야 할 뚝 바른 方向을 찾아내야 한다.

4半世紀동안의 分断의 歴史에 새 転機를 마련할 〃南北共同声明〃이 発表되었다. 自主·平和統一을 為한 南北의 対話의 門은 열렸다. 緊張을 풀기為한 対話 이러한 対話가 南北間에 가로 놓였던 壁을 뚫고 오고가기 始作했다. 그러나 本格的인 対話는 지금부터 始作하지 않으면 안된다. 人為的 障壁과 思想的 障壁을 除去하겠다는 매우 어렵고 벅찬 対話가 몇몇 사람의 힘 만으로 結実을 보리라고 到底히 期待할 수 없는 일이다. 全国民이 이에 参与하고 声援하지 않으면 対話는 順調롭게 進転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南北対話에 臨하는 国民의 姿勢는 어떠해야 하는가 韓国民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対話에 臨하는 全国民은 自由民主主義에 대한 透徹한 信念을 가져야 한다.

自由民主主義가 日常生活에 뿌리를 박도록 하는 한편 民主的인 秩序와 体制를 発展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特히 北韓에 対해서는 自由民主主義를 가르쳐 주고 그 優越性을 스스로 깨닫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自由의 물결이 北韓으로 怒濤처럼 흘러들어가 北韓同胞가 自由를 為한 闘争에서 앞장서도록 뒷받침해주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北韓과의 平和的 対決, 善意의 競争에서 勝利하는 捷径인 것이다.

2年前 朴正熙 大統領이 提示한바에 따라 韓国은 民主主義와 共産主義가 그 어느 体制가 国民을 보다 豊裕하게 하며 살 살수 있는 条件을 갖춘 社会인가를 立証하는 開発과 建設과 創造의 競争에 나서게 된 것이다. 韓国의 一貫한 提案을 北韓이 受諾한 以上 韓国은 民主主義의 優越性을 実証하는 平和的 対決에서도 期期必코 勝利를 争取해야 한다.

다음 対話는 国力을 그 밑 바탕으로 해서 推進되어 진다는 原理를 생각할때 対話를 成功裡에 이끌고 나가기 為해서는 먼저 国力을 길러야 한다. 韓国이 南北間의 対話를 主導的으로 推進하고 있는 것도 그만한 우리의 国力이 成長했다는 것을 意味한다.

事実 韓国은 지난 60年代에 才1次 才2次 経済開発 5個年計劃을 成功裡에 完遂하여 工業化의 基盤을 構築하고 70年代에 들어서는 한편으로는 〝北韓의 戦争準備〟에 対処할 수 있는 自主

国防의 힘을 기르고 또, 한편으로는 才3次 5個年 計劃을 새로이 着手함으로써 "安定과 均衡"을 目標로 해마다 発展을 거듭해 오고 있다. 더우기 今年度부터 勤勉, 自助, 協同의 精神으로 繁栄하는 마을, 繁栄하는 国家를 達成하기 為한 새마을 運動 즉 새로운 마을 만들기運動이 全国에서 燎原의 불처럼 타오르고 있다.

北韓을 휠씬 앞지른 이러한 国力의 伸張에 따라 韓国側은 自信과 勇気를 가지고 平和統一의 構想을 먼저 提唱하여 韓国의 主導下에 北韓과 対坐하여 統一의 길을 摸索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今後 展開되는 北韓과의 対話를 通해서 韓国이 追求하는 自主, 平和統一의 念願을 成就하기 為해서는 今年부터 始作한 才3次 5個年計劃의 推進에 拍車를 加하여 祖国의 繁栄을 目標로 하는 새마을 運動을 成功시킬 수 있도록 経済的 内実을 期해야 할 것이다. 経済的 内実뿐만 아니라 政治, 経済, 社会, 文化등 모든 分野에서 北韓을 凌駕하는 国力을 育成함으로써 비로소 南北의 対話를 成功으로 이끌어 갈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対話의 成敗는 北韓이 어느 程度의 誠意를 가지고 対話에 臨하느냐를 생각할때 우리는 性急하게 対話의 成果를 期待한다거나 서두를 必要는 없다. 忍耐와 誠実로써 対話를 推進해 나가는 姿勢가 무엇보다도 必要하다.

더우기 今番 金英柱의 一方的인 8.28의 対話断絶 声明등이 우리에게 冷水3斗를 끼얹는 覚醒作用을 했다. 우리는 계속 対話의 再開에도 이니시어팁을 잡고 꾸준한 努力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奮発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感傷的 統一論

議 못지않게 지나친 悲観이나 挫折感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韓国과 비슷한 状況에 있는 独逸이 全国民의 結束된 支援을 받으면서도 長期間의 会談過程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그 解決의 실마리를 찾게 된 例는 分断된 国家를 統合하려는 対話가 그 結実을 볼때 까지는 적지않은 時間이 必要하다는 것을 証明하고 있다.

꾹 참고 견뎌서 서둘지 않고 차분히 기다리면서 声援하는 態度 이것이야 말로 西独이 東独을 앞질러 対話를 主導的으로 이끈 原動力이었다.

한편 断絶되었던 対話가 再開된다 할지라도 北韓이 如前한 態度로 誠意를 보이지 않고 또 決裂의 破局으로 끌고 갈 境遇도 想定하여 이에 対備하지 않으면 안된다.

金日成은 1950年에 偽装된 平和攻勢를 展開해 놓고는 奇襲的인 6·25動乱을 일으켰으며, 休戦後에는 또 武装게릴러를 南派시키는가 하면 非武装地帶를 要塞化하는 등 戦争準備를 끝냈다는 事実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더우기 最近 西海岸에서 頻発시키고 있는 北韓 海軍의 노략질은 警戒를 要하는 事態라 하지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間의 対話의 再開와 推進에 尽力하면서도 한편으로는 万一의 事態에 対備하여 総力安保의 体制를 一層 굳혀가야 할 것이다.

現段階에서는 対話가 始作되었다가 一旦 中断되었으며 다시 再開될 機能도 보이고는 있지만 이것은 다만 平和追求의 努力이 傾注되고 있다는 事実外에 아무런 変化도 없다는 즉 말하자면 至極히

어려운 状況下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겠다.

다음 南北対話를 成功시켜 統一을 達成하기 為해서는 무엇보다도 国民의 総和가 이루워 져야 하겠다.

朴正熙 大統領이 周辺情勢의 바른 判断下에 平和統一을 提案했고 北韓이 이를 受諾한 以上 韓国民族 間에 異見은 있을 수 없으며 傍観도 있을 수 없다.

南北의 対話를 支援하기 為해 国論을 統一하지 않으면 안되며 国民의 努力을 하나로 結集해야 한다.

大業을 達成하기 為해 全国民이 一致団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함으로써 만이 分断 27年만에 처음 試図된 自主平和統一을 為한 対話는 進展되고 또 結実을 보게 될 것이다.

第 2 章　經濟政策面에서　본　共同聲明

才 1 節　7.4 声明의　經済的側面에서　본　意義

1972 年　7 月 4 日　5 千万　우리民族의　耳目을　集中시키고　全世界를　들끓게　한　感激의　날. 이번의　南北共同声明은　정말　歷史的이고도　衝擊的인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이　7.4 共同声明을　어떻게　받아　들일것인가.　사람에　따라　多少의　뉴앙스나　見解의　差는　있겠지만　經済的　側面에서　이를　다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째, 歷史的으로　볼때　現在　우리가　処해있는　이　時点은　4 半世紀의　긴　歲月이　흐른　後에　처음　있는　重大한　転換点이라는　것을　들　수　있다.

1945 年　才 2 次　大戰의　終結과　함께　国土가　南北으로　分断된　以来로　南北関係는　敵対的인　対決関係에　始終해　왔었다.

分断以来　非公式的이고　冒険的인　協商이　여러번　試図되었었지만　6·25 動乱이라는　民族相殘의　極限対決이　있었고,　傍戰後에도　北韓의　쉴새　없는　挑発的인　武力赤化工作으로　因해　이날에　이르기까지　南北関係는　停戰下에서　対決関係를　持続해　왔었다.

이러한　南北関係에　解氷무우드가　나타나기　始作한　것은　赤十字社를　主軸으로　하는　南北赤十字会談이　이루워짐으로써　비롯했다.　勿論　그　背景에　美·蘇·中　3 国간의　国際政治面에서의　解氷現象등이　作用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의　共同声明은　이때까지의　南北関係에　큰　変化를　가져왔다.　이것은　韓半島에　있어서의　分断

状態가 〃対決의 時代〃에서 〃対話의 時代〃로 移行한 것을 意味하는 것으로서 4半世紀에 걸친 断絶状態에 終止符를 찍고 南北의 連繫関係의 復活을 為해 韓国의 近代史에 一大転機를 마아크하게 했다.

다음 政治的 側面에서 이를 다시 整理해 보면 7.4共同声明은 한층 더 重大한 意義를 가지는 것이다. 그것은 7.4声明이 南北의 統一政策에 重要한 変化를 가져왔다.

그 하나는 共同声明에 依해 南北双方의 統一政策에 共通의 基本的인 方向이 設定되었다는 事実이다. 共同声明속에서 南北双方은 統一問題에 対한 3原則에 合意한 것이다.

이 3原則은 解釈如何에 따라 많은 問題를 안고 있겠지만 어쨌든 双方이 共通된 하나의 統一政策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政治的인 面에서 봤을 때 〃劇的인 進展〃이라 하겠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結果가 나오기까지에는 그야말로 긴 歲月동안의 努力과 協商이라는 経過를 겪지않으면 얻어질 수 없는 結果이기 때문이다. 이点 우리政府의 英断은 높이 評価되어야 한다. 다만 이 統一 3原則에는 몇가지의 問題가 남아 있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첫째 〃外勢〃의 概念이다. 国聯을 創設한 根本趣旨와 目的, 그리고 그 機能등의 面으로 보아 우리는 国聯을 外勢의 範疇에 넣을 수 없다. 万若 国聯을 外勢로 본다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国際社会에서 버림받게 될 것이다.

다음 思想, 理念, 制度의 差를 不問한다는 것은 異質的인 相互의

体制를 그대로 現実로 認定하고 그 위에 統一을 実現한다는 것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따라서 이것은 두개의 異質的 現実의 複合으로서의 統一을 意味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統一問題 또는 統一作業에 接近하는 하나의 方法 또는 立場을 意味하는 것으로 解決해야 할 것이다. "現状凍結"이라는 国際潮流에 適応하려는 外交方針의 端的인 表現이라고 拡大解釈을 할지는 모르지만 "現状凍結"의 本質이 統一을 排除한 것인 限에 있어서 이것은 決코 그러한 現状凍結을 意味하는 것으로는 생각할 수 없다. 万若 이 項目을 그와 같이 拡大解釈을 했다고 하면 統一三原則 自体가 矛盾을 内包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統一을 為한 三原則이라고는 말할수 없을 것이다.

다음, 統一問題를 解決하기 為해 設定된 南北調節委員会의 性格과 機能을 어떻게 規定하고 어떻게 組織 運営하느냐 하는 問題이다. 共同声明에 依하면 이 調節委員会는 統一問題를 協議하기 為해 設定된 것으로서 그 機能은

① 7.4 声明의 合意事項을 推進하고

2) 南北間의 懸案問題를 解決改善하며

3) 統一三原則에 立脚하여 統一問題를 解決하는 것이 이 調節委員会의 任務이다.

이와 같이 南北을 잇는 "파이프 라인" 또는 対話의 広場의 範疇를 넘는 多角的인 南北統一委員会와 같은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単只 政治的인 問題뿐만 아니라 経済的인 問題까지도 取扱하게 된다고 생각되며, 7.4 声明에서 밝힌바와 같이 偶発事故의 予防도 包

包한 綜合的 多目的的인 性格의 것이라고 解釈된다. 이와 같은 重大한 性格과 機能을 가진 委員会를 어떻게 形成하여 運営해갈 것인가는 決코 쉬운 일이 아니다.

万能에 가까운 全権이 賦与되지 않는限 委員会의 設定目的에 合当한 任務를 다하는 것은 不可能할 것이다.

4) 社会的인 面에서 보면 7.4 共同声明은 매우 衝撃的인 同時에 条件反射에 가까운 反応을 惹起시켰다 하겠다.

南北間의 緊張状態를 緩和했을 뿐 아니라 한걸음 나아가 相互信頼의 雰囲気를 造成하기 為해 서로 中傷과 誹謗을 排撃하고 武力挑発 行為를 中止하며 不意의 衝突을 防止하기 為해 積極的인 措置를 講究하고 断絶된 民族的連繋를 復活시키기 為해 多方面에 걸친 交流를 行할것. 그리고 赤十字会談을 成功시키기 為해 積極的으로 協力하는 것등으로 되어있다.

이와 같은 社会的 軍事的인 合意는 오랜 民族的 念願이 이루워질 날도 멀지않았다는 一種의 幻想的인 期待와 앞날에 대한 予測에 있어서 論理의 飛躍을 招来하고 말았다. 이것은 곧 条件反射的인 反応이라고 하겠다. 이때까지 뼈에 사무쳐 있던 우리의 괴로운 経験을 解消시켜 버리고 마치 記憶喪失症에 걸린 것과 같은 印象이다.

현데 이러한 期待를 現実的인 것으로 만들기 為해서는 前提가 되는 하나의 必須条件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南北声明에서 闡明한 合意事項을 北韓側이 얼마나 誠意를 가지고 遵守 하느냐의 与否에 따라 未来에 대한 모든 期待는 仮想에 지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4半世紀의 南北関係를 도리켜 볼때 이 때까지 約束된 事項이 없었기 때문에 武力的인 挑発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軍事停戦委員会의 記録이 雄弁的으로 立証하고 있다. 却説하고 社会的 作用은 多分히 既存秩序에 対한 攪乱 乃至는 整理를 要하게 하는 일들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認識하고 또 対処해 나가야 하는가를 좀더 真摯하게 論議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

勿論 7.4 声明은 대단히 많은 点들을 示唆하고 있다. 또 社会的 安定感을 定立시키겠다는 心理的인 面도 看過할 수는 없다. 今後의 対話의 進行如何에 따라서는 스포오츠, 文化등의 非政治的인 交流가 充分히 予測되는 것이다.

한편, 経済的인 面에서 보아도 国内外에 많은 反応을 招来했다고 하겠다.

먼저 対外的인 면에서 볼 경우 心理的인 作用이 적지않은 것 같다. 그하나는 지난번의 非常事態 宣言이 経済에 미친 心理的 作用에 対한 減殺効果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国際的인 不況의 影響에다 더구나 非常事態의 宣言은 企業経営을 비롯하여 国民生活에 적지않은 心理的인 影響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心理的인 圧迫은 7.4 声明에 依해 어느程度 減殺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또 하나는 南北経済의 部分的인 補充性의 復活을 可能케 했다는 것이다. 다음 対外的인 面에 있어서 아직 具体的인 徴候는 없지만 外国資本 特히 多国籍 企業에 対해 対韓投資의 可能性

을 한층 더 높였다고 보겠다.

外国資本이 우리나라에 投資하는데 있어서 이때까지 否定的인 投資環境 槪念의 하나가 分断에서 오는 投資의 安全性의 欠如에 있었다는 것은 疑心의 余地가 없다. 이러한 政治的 特殊性은 오래동안 外国과의 経済協力을 阻害하는 要因으로 作用해 왔다. 비록 7.4 声明이 投資의 安定性을 絶対 保障하는데 까지는 가지못해도 적어도 어느 程度는 不安定性을 改善해 나가는 하나의 契機가 될 것은 疑心의 余地가 없다.

이과 같은 予測은 特히 美.中間의 急進的인 接近으로 助長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予測 乃至 期待는 事態에 説敏한 日本資本의 경우와 같이 北韓과의 経済協力을 増大시킬 可能性과 함께 相対的으로 그에 対한 否定的 作用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看過할 수 없다.

才2節 南北経済의 相互 補充効果

여기서 過去 4半世紀에 걸친 "断絶의 時代"에 있어서의 南北間의 経済関係를 돌이켜 보고자 한다.

8·15 解放 直後의 混乱時代에는 南北経済가 多少의 接触이 있었다. 여기서 그 経緯를 槪述해 보겠다.

먼저 南北間의 投資交換이 公式으로 行해진 것은 韓国政府 樹立 直前인 1948年 8月2日 当時의 商務部令 才4号에 依하면 南北交易을 許可制로 하여 北의 青丹, 白川, 磁峴, 竹岩, 陶門里등을 指

定 去来場所로 하고 品目은 対外貿易許可品目에 準하여 商務部의 許可를 必要로 하게 되어 있었다. 그後 同年 9月27日 事情에 依해 이 交易이 中断되고 10月27日에 다시 交易条件이 発表되었다.

이에 依하면

(1) 綿布, 生고무, 繰綿등의 流出은 禁한다. 但 이미 이를 商品의 代償物資로서 北韓側 物資를 들여오는 許可를 얻은 것은 此限不在.

(2) 今後 北韓에 期待하는 物資는 苛性소오다, 팔프等으로서 流出物資는 機械類, 電気製品등으로 限定하고 있다.

그後 이를 補充하여 다음과 같은 南北物資交流의 品目別 数量이 発表되었다.

1) 들여오는 物資(月間需要量, 単位 屯).

카아바이트(400), 苛性소오다(100), 팔프(225), 소오다灰(55) 카이본 黒(5)

2) 代償으로 나갈物資(月量 単位 屯)

車輛部品(10), 自転車部品(2), 工具(3), 못(30), 電線(5), 유리(1), 섬프類(30), 鑿岩機部品(20), 電気製品(2) 海草類(6), 電球(5万個), 運動靴(10,000足)

이와 같은 条件으로 物資交流가 行해진 셈인데 同年 12月12日 새로이 南北交易 施行細則을 公布하여 43年 3月까지 계속되었다.

南北交易 施行細則 骨子는 다음과 같다.

1. 原則的으로 代償物資를 먼저 들여 온다.

2. 種目別最低 搬入量이 30屯 以上의 경우에 만 許可

3. 有実績者에 対해서는 1人当 100屯, 2種目까지 許可

4. 代償物資 不要品目은 需給調査 完了때 까지 申請数量 全部를 許可.

5. 境界線까지 搬入을 끝내고 官公署의 車荷証明이 添付된 것에 대해서는 全量 搬入을 許可

6. 代償物資의 品目은 카바이트, 苛性소다, 갈프, 소다灰, 카본黒, 人絹糸로 한다.

이와 같은 数次에 걸친 規定変更에도 不拘하고 年間 約 17億원 相当의 物資가 南北間에 交流되었다. 当時의 交流量을 보면 48年에 搬入이 12億6000万원, 搬出이 4億6000万원, 49年의 1月부터 2月의 2個月間에 搬入이 1億7000万원, 搬出이 2億7000万원에 이르고 있으며 48年中의 交易実績은 다음과 같다. (略)

한편 48年5月14日 対南 断電까지에 韓国은 北으로부터 電力의 供給을 받아 왔다. 解放直前까지 우리나라의 総発電量은 177万KW였는데 그中 北이 156KW, 南이 21万KW로서 韓国側의 発展能力은 韓半島 全発電量의 12%에 不過했다.

뿐만 아니라 北韓의 発電施設은 거의가 水力임에 反해 南韓은 70%가 火力이며 燃料事情등으로 因해 当時의 韓国의 発電量은 全体의 4%에 不過했다. 따라서 当時 우리의 最大의 打撃은 北으로부터의 断電이었다는 것은 짐작이 간다. 그것은 마치 現在의 石油波動과도 비슷하며, 또 그 衝撃의 遠因도 発電施設의 北水南火에 縁由한 것이다.

才3節 北韓의 貿易実態

7.4 声明을 経済的인 側面에서 보았을때 가장 関心을 많이 끄는 것은 "多方面에 걸친 諸般交流"의 一環으로서 南北間에 将次 있을 것으로 予想되는 物資의 交流이다. 実際로 南北間에 物資의 交流가 이루어 진다면 언제부터 얼마만큼의 量이 可能할 것인가. 이것을 答하기에 앞서 먼저 北韓의 貿易状況을 살펴보자.

北韓의 貿易은 余他 많은 共産圏 国家들과 같이 "国家"管理下의 計劃貿易이다. 金日成은 1967年 12月 10大政綱을 発表함에 있어서 対外貿易에 관한 基本方針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 貿易의 発展은 社会主義 市場에 才一義的 意義를 求한다.

둘째, 亜阿의 新興国家들과는 完全한 互恵平等의 原則에 立脚하여 経済関係, 通商発展에 努力한다.

세째로 社会制度를 달리하는 나라에 대한 通商貿易은 北韓의 自主権을 尊重하고 北韓과의 経済的 連繋를 바라는 限에 있어서 이것을 発展시킨다. 但 資本主義 諸国과의 経済的 実務関係는 어디까지나 才二義的 意義밖에 갖지 않는다.

이에 依하면 北韓의 貿易은 純粋한 意味에 있어서의 貿易이라기보다는 어디까지나 政治的인 目的을 内包한 一種의 政治貿易이라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좀더 北韓의 貿易의 本質을 究明하기 為해 北韓의 貿易制度를 概観해 보면 所謂 憲法에 外国貿易의 国家管理를 規制하여 対外貿易을 計劃経済에 従属시킬 것을 規定하고 있다. 社会主義 建設에 必要한 物資를 一定의 輸入計劃에 따라 導入하고

輸入計劃을 達成하기 為해 一定의 輸出計劃에 따라 輸出을 하고있다. 따라서 파아터貿易이 그 本質로 되어 있다.

貿易狀態는 政府間 貿易과 友好貿易이라 称하는 民間貿易으로 二元化되어 있지만 友好貿易의 경우라 할지라도 政府間 貿易과 本質的으로 다를바 없다고 해도 過言은 아니다. 政府間 貿易은 長期通商協定에 依해 每年 去来品目과 量이 定해지며 民間貿易은 相対国에 友好協会를 設置시켜 同協会에의 加入商社에만 限해서 去来를 하고 있다.

貿易機関으로서 貿易部 管轄下에 国営商社와 協同商社가 이를 担当하고 있다. 例컨데 朝鮮設備輸出商社, 朝鮮設備輸入商社등 18個商社가 輸出入業務에 従事하고 있으며 그 中 設備와 機械類만은 一般 輸出入業務에서 分離되어 있고 나머지는 輸出入을 兼務하고 있다. 그 밖에 中共의 경우와 같이 国際貿易促進委員会가 있어서 西欧側과의 貿易의 拡大 및 開拓業務에 従事하고 있으며 対外 貿易機関으로서는 에멘, 칠레等 6個国에 通商代表部를 두고 있다. 決済通貨는 共産圏과의 경우는 루불, 其他의 나라와는 스타린 파운드 또는 瑞西프랑을 쓰고 있다. 1959年 貿易銀行이 設立되어 国際 決済業務를 取扱하고 있다.

貿易対象国은 1970年末 現在 32개国과 政府 或은 民間 貿易協定을 맺고있고, 그 밖에 日本을 비롯 말레이져, 카나다, 이탤리, 西独등 19개国과 去来를 하고 있다. 協定貿易国으로서는 共産圏에서는 소聯을 비롯하여 13개国이며 亜細亜 地域에서는 印度등 6個国, 그리고 中近東, 阿大陸에는 이락등 11개国 그밖에 필리핀, 오스

트레일러등이 있다. 貿易高는 北韓이 統計를 発表하지 않기 때문에 正確히는 모르지만 大体로 7～8億달라 程度로 推測된다.

才4節 南北物資交流의 可能性 検討

74声明에서 合意된 多方面的 交流中 想定되는 交流 可能分野로서는 먼저 文化, 体育, 物資등의 交流가 생각되는데 여기에는 몇가지 前提가 必要하다.

첫째로 南北間의 対話의 進行如何에 따라 비로소 그 可能性이 具体化되는 것이다. 調節委員会의 運営이 順調롭게 進行될 때 즉 調節委에서 協議되고 合意를 얻을때 비로소 그 可能性이 提起될 것이다. 万一 双方이 다 交流分野 또는 方式에 対해 異見을 提示했을 때는 交流의 実現은 커녕 그 可能性 마저도 危殆롭게 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交流이던 그것은 南北間의 対話의 進行과는 不可分의 関係에 있다.

둘째, 対話를 促進시키는 方法의 하나로서 그 可能性이 考慮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分野 또는 範囲가 極히 制限되고 따라서 部分的으로 밖에 試図될 수 밖에 없다. 記者의 交流도 調節委의 運営과는 関係없이 赤十字会談의 一環으로서 이루어 질 可能性이 이미 示唆되었다.

세째로 모든 交流가 設令 実行段階에 들어간다 해도 그것은 스스로 限界가 있는 것이다. 相当한 期間에 걸쳐 対話의 段階가 계속될 것으로 発展된다.

네째, 또 하나 重要한 것은 어떠한 形態의 交流라 할지라도 그 交流対象은 内国的인 範囲로 限定된다는 것이다.

74声明에서 合意본 主体의 概念에도 飛躍的인 解釈을 하고있다. 北韓을 하나의 実体로 認定하는 것은 事実이지만 그 実在는 어디까지나 形式論理上의 実在이지 政治的인 実在로서 認定하는 것은 아니다. 政治的으로 보았을 때 北韓은 厳然한 韓国領域의 一部이다. 다만 対話의 対象으로서 限定된 実在性을 認定할 따름이다. 이点 74声明으로써 国家間의 合意인것 처럼 国際法인 意義를 준다거나 物資交流를 貿易의 概念으로 認識할수는 없다. 이와 같은 前提下에 지금부터 行해질 物資交流의 可能性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構造的인 面에서의 南北経済의 補充性은 4半世紀라는 断絶이 있었는데도 不拘하고 아직 尚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解放前 긴 植民地時代에 築成된 南北経済의 補充性은 解放後 北은 計劃経済下에 共産主義 経済体制를 推進하고 南은 南대로 経済의 計劃化에 依해 近代化를 進行시켜 왔지만 相互 補足해야 할 当為性은 如前히 남아있다.

特히 半島全体의 物資의 需給関係에서 본다면 消費産業이 앞선 韓国側에서나 또는 消費材工業이 極히 뒤떨어진 北韓의 実情에서도 南北経済가 서로 補足的인 機能을 맡게 될 余地는 充分히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南北間의 物資交流가 그러한 経済的 必要性에서만 促進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그 理由는 物資交流에 政治性을 排除할 수 없는 北韓의 異質的

인 経済体制와 政治体制에 있다. 北韓은 貿易을 厳重한 国家管理下에서 計画貿易을 実施하고 있으며 特히 共産圏에 対한 依存度가 80%라는 高率을 占하고 있다. 그래서 北韓은 物資交流를 貿易의 一部로 看做하는 可能性이 많다. 万若 그들이 南北間의 物資交流를 国際貿易과 마찬가지로 看做한다면 여기에 政治性을 強하게 作用할 것은 뻔한 노릇이다. 따라서 交流対象 品目의 選択이나 数量의 決定에 政治的인 配慮와 이에 依한 某種의 制限도 加해질 것이다.

또 交流方式에도 많은 難点이 있다. 物資交流가 実現되기 為해서는 그를 為한 方式, 手続이 調節委員会에서 協議된 뒤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되지만 交流의 루우트와 節次등 決済方法이 清算등 아직도 많은 難題가 남아있다. 結局은 原始的인 形態인 「파터」方式이 될것이겠지만 이럴때도 売買価格의 設定基準을 어떻게 定하며, 또 内外国税에 関한 税制上의 差를 어떻게 取扱할 것인가등 容易한 問題는 아닌것이다.

物資交流의 節次에도 難点은 있다. 즉 停戦線이 있고 緩衝地帯가 있기때문에 이러한 状況下의 物資 受授의 節次는 決코 容易한 것이 아니다.

場所 또는 受授地点이 設定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은 勿論이려니와 한편으로는 物資交流機関의 設置를 必要로 할 것이며 輸送手段이나 이에 따른 諸般問題, 그리고 検収機関의 設置등이 考慮되어야 할 것이다. 特히 一般 貿易去来에 있어서 번번이 일어나는 問題인 크레임등이 発生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物資交流上의 諸問題는 앞으로 調節委에서 檢討되어야 겠지만 이에 다시 制度 또는 政策上의 整備 補完도 講究되지 않으면 안된다.

現在 우리나라는 政策的인 考慮에서 非敵性 共産圈과의 貿易을 認定하고 있지만 敵性 共産圈에 対해서는 禁하고 있다. 또 物資交流에는 円滑한 遂行을 為해 關係者의 交流를 隨伴하는 것이 常例로 되어있지만 이것 亦是 愼重이 생각해야 할 問題이다.

끝으로 이와 같은 物資交流의 狀態가 今後 어떻게 拡大되느냐는 것이다. 論理的으로는 経済交流까지 나아가게 되지만 万若 그렇게 되었을 때 이것은 거꾸로 〃現狀凍結〃을 固定化하는 結果가 되지 않는다는 保障은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統一目的과 方法은 顚倒되어 버려 또하나의 悲劇을 낳게된다.

以上 몇가지의 前提下에 想定되는 物資交流의 可能性과 問題点을 考察해 보았다. 結論的으로 物資交流는 決코 容易하게 実現되리라고는 생각되지 않지만 設使 이와 같은 交流가 試圖된다해도 많은 難点을 낳기고 있기때문에 그야말로 対話 以上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第3章 南·北赤十字會談의 回顧

才1節 우리의 提議

5千年의 悠久한 歷史를 가진 우리民族은 같은 피, 같은 国土에서 同一文化를 創造하여 이땅위에 살아왔다. 解放과 더불어 国際政治의 産物로서 他律的으로 分断된채 南北은 各已 相異한 体制下에서 4半世紀를 지냈다. 特히 6·25南侵으로 因한 同族相残의 悲劇은 이와 같은 分断状態를 断絶로까지 몰아넣어 家族 親戚등 가까운 血肉間끼리 서로 生死, 所在에 관한 書信의 往来마저도 못하는 状態로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며 悲哀와 苦痛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年代에 와서 国際情勢의 趨移가 対立에서 対話에로 転換하는 傾向을 보여 韓半島에 利害関係를 가진 強大国을 비롯하여 国連의 움직임은 同地域内에서의 戰爭再発의 危険性을 排除하고 緊張緩和에의 努力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韓半島에 있어서도 国際情勢의 変動에 適応하면서 南北分断 状態를 解消하고 民族의 念願이요 至上課題인 統一問題를 自主的으로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自覚이 한결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政府도 統一의 大業을 主導性을 가지고 実質的으로 推進하기 為해 人道的次元 → 非政治的次元 → 政治的次元이라는 3段階 政策을 闡明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우리 政府의 統一政策에 따라 大韓赤十字社는 1970年 8月12日, 人道的立場에서 離散家族의 消息을 確認하기 為한 南

北赤十字会談을 北韓赤十字社에 提案했던 것이다. 崔斗善 総裁는 이 提案에서 〃4半世紀에 걸친 南北간의 障壁은 모든 民族的悲劇의 源泉이며 特히 南北으로 흩어진 離散家族의 悲劇은 今世紀에 있어서의 人類의 象徵的悲劇〃이라고 指摘하고 이것을 人類愛와 災難救護를 基本的使命으로 하는 赤十字事業의 対象이라고 規定하면서 〃이러한 離散家族의 悲劇은 南北간의 障壁이 撤廃됨으로써 비로소 完全히 終息될 수 있지만 이것이 短時日内에 実現되기 어려운 現実에 있어서 적어도 1000万 南北離散家族의 実態를 確認하고 이들의 近況을 알리고 그 再会를 斡旋하는 家族찾기運動〃만이라도 먼저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前提하고 이 問題를 具体的으로 協議하기 為해 〃南北赤十字 代表들이 한자리에 모여 会談할것을 提案한다〃고 말했다.

또 崔総裁는 同日付로 国際赤十字社機構 및 各国 姉妹赤十字社에 보낸 書翰에서 〃南北 1千万離散家族 찾기運動〃의 提案은 〃離散家族의 生死를 確認하고 이들의 解放을 될 수 있는대로 容易하게 하기 為해 努力한다〃는 要旨의 才19次 赤十字国際会議 決議의 精神에 立脚한 것이라고 말하고 〃따라서 이를 為해서는 人道主義 原則을 조금이라도 害치는 政治性은 排除되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南北間의 緊張과 対立은 一挙에 解消되지 않는다는 것은 主観的, 客観的으로 明白한 現実이기 때문에 南北간의 異質的 体制 및 思考, 感情의 差異를 克服하면서 対話를 成功으로 이끌기 為해서는 南北間의 不信感을 除去하여 相互信頼의 雰囲気를 造成할 必要가 있다. 이러한 南北融和의 前提条件이 造成되지 않은채 高次元的

終局的인 対話를 試図한다면 오히려 対立感情이 激化하여 緊張状態를 加重시킬 것이 明白하기 때문에 南北간의 対話는 먼저 対立要因의 減少가 쉬운 問題부터 取扱함으로써 그 成功이 期待된다고 본다.

이와 같은 初歩的인 対話의 成功은 将来의 보다 次元높은 対話로 発展시키는 基礎를 만드는 것이며 그 成功이 期待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때문에 처음부터 高次元의 対話를 함으로써 失敗하는것 보다는 段階的으로 対話를 밀고 나가는 것이 実質的으로 南北간의 緊張緩和를 促進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어쨌든 大韓赤十字社가 提案한 南北赤十字会談의 性格이 비록 人道的問題에 限해 있다해도 国土分断 以来 처음으로 南北간에 이루어지는 実質的인 対話라는 点에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또 南北赤十字会談이 成功하면 그것이 基礎가 되어 余他의 問題들도 対話를 通해서 解決可能한 無限의 可能性이 発見되기 때문에 現実的으로 高次元的인 것 보다는 이와 같은 初歩的인 対話가 오히려 南北問題 解決의 실마리가 된다는 点에 있어서도 意義가 큰 것이다. 여기에 또 닉슨美大統領의 訪中이라는 政治的 衝撃이 일어났다. 우리 韓国民은 8·12提案에 依해 이와 같은 衝撃에 対해 一種의 免疫性이 생긴것 같았다. 今後도 激変하는 事態의 趨移에 어푸로 우치함에 있어서 그 衝撃을 緩和한다는 意味에 있어서 南北赤十字会談이 하나의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지만 그간의 会談経験 더욱이 近来의 北韓의 엉뚱한 姿勢는 우리에게 警鐘을 울려주고 있으며 忍耐를 強要하고 있다.

才2節 南北赤十字会談의 그간의 成果

以上과 같이 71年 8月12日 大韓赤十字社가 南北으로 흩어진 1千万家族찾기 運動을 目的으로 한 人道的 南北会談을 提案한데 対해 北韓赤十字会가 그것을 그들의 中央委員会 委員長이름으로 受諾함으로써 分断26年만에 처음으로 南北対話가 열리게 되었다.

大韓赤十字社와 北韓赤十字会의 双方의 意思를 文書로써 確認하기 為해 板門店 中立国 監視委員会会議室에서 双方의 派遣員은 5次의 接触을 가졌었다. 이어서 그해 9月20日 같은 場所에서 歷史的인 才1次 南北赤十字 予備会談을 開催하게 됐으며 南北이 各各 5名씩으로 構成된 代表団을 出席시켰다.

이 予備会談은 25次의 本会談과 13次의 実務者会談(非公開)등 43次의 会談을 板門店에서 1年을 끌어 겨우 議題(本会談의)의 合意를 보았지만 우리는 이 予備会談에서 予期치않은 難関과 迂余曲折을 겪지않으면 안되었었다.

우리 代表団의 主導者的 忍耐와 誠実한 説得에 依해 双方은 板門店 境内에 〃常設 赤十字会談 連絡事務所〃를 設置하고 UN軍側 建物인 〃自由의 집〃과 北韓側 建物인 〃板門閣〃間에 直通電話를 開設할것, 本会談을 서울, 平壌으로 번갈아가며 開催하는것도 合意를 본 것이다. 그것은

① 本会談의 場所

② 本会談의 日時

③ 本会談의 議題

④ 本会談의 代表団 構成問題

⑤ 本会談의 進行規程등 5個項目이었다.

이에 따라 才2次 및 3次의 予備会談에서는 本会談의 場所問題가 있었는데 여기서 北赤側은 本会談의 場所는 板門店이라야 한다고 우겼다. 그러나 우리 代表団은 双方의 赤十字 中央機構가 있는 서울과 平壤에서 交互로 여는것이 効果的이라고 主張하면 이와 附随된 많은 意義를 力説하자 北赤은 若干 누구러지면서 먼저 板門店에서 한번 연다음 그것이 円滑하게 進行되면 서울과 平壤에서 열자는 修正案을 내었으나 結局 우리側의 提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우리側은 그에 따른 8개項目의 追加議題를 提案했다. 이에대해 北赤은 予備会談의 最終段階에서 本会談의 進行規程 問題를 討議할때 이를 함께 討議한다는 条件附로 同意했다.

才4次에서 6次에 이르기까지 『本会談의 時間』問題가 討議되었는데 이때까지 우리側에 主導権을 빼앗겨있던 北側은 그들의 그것熱意를 偽装하기 為해 客観的으로 아무런 妥当性도 없이 12月1日에 才1次 本会談을 열자고 主張하면서 갑작이 攻勢的 姿勢로 나왔다. 그들은 本会談 開催時日 問題는 이미 予備会談에서 議題로서 定해져야 한다고 頑強히 主張하면서 한치도 물러나려 하지 않았다. 이에 対해 우리側은 予備会談에서의 慎重한 基礎作業 없이는 本会談의 成果는 期待하기 어렵기 때문에 予備会談에 山積되어 있는 많은 問題들의 討議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時点에 있어서 어떻게 本会談의 時日을 미리 못박을 수 있느냐고 反問하고 予備会談이 円滑한 成果를 거두기 為해서는 本会談의 日字를 미리 定

함으로써 予備会談의 遅延을 招来해서는 안된다고 説得하여 〃第1次本会談은 予備会談 終了日로부터 1個月 以内에 開催한다〃는 代案을 提示했다. 北赤은 우리의 이와 같은 合理的 提案에도 不拘하고 오히려 韓赤이 本会談날짜를 莫然히 遅延시켜 進行中인 予備会談을 限없이 끌어가고만 있다고 会談遅延의 責任을 우리側에 転嫁시키려 들었다. 그러나 結局은 우리側의 代案에 同意하지는 않았지만 〃71年 12月10日 午前10時에 才1次本会談을 연다〃고 그들의 従来의 主張에서 後退했으며 다음 議題의 討議進行에 同意했다. 이에따라 本会談 開催날짜의 問題는 予備会談의 끝날무렵에 再論키로 하자는 우리側 主張이 貫徹된 것이다.

才3節 予備会에 本会談議題 確定

長長 317日의 予備会談에서 本会談의 議題를 두고 双方間에 議論이 벌어졌다. 우리側은 71年 10月27日의 才6次予備会談에서 다음과 같은 5個項의 本会談 議題를 提議했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生死 및 所在를 確認하고 그들의 近況을 알려주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끼리의 書信交換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再会斡旋 및 相互 訪問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再結合 問題

⑤ 其他 付随的으로 解決할 問題 등이었다.

이에 対해 北韓側의 議題案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 및 親友의 自由往来와 相互訪問을 実現시켜주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 및 親友間의 自由로운 書信交換을 実施하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을 찾아주고 再会를 斡旋하는 問題등이었다.

以上과 같은 両側의 提案을 比較해 보면 北赤側은 南北間의 冷厳한 現実을 全혀 度外視하고 南北問題를 一挙에 解決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헛된 名分論에 사로잡히기 쉬운데 対해 韓赤側은 南北間의 人道的 会談을 提議하게 된 立場을 現実的 可能性에 立脚한 合理的 段階的인 解決策을 試図하려는 実際論을 展開한 것이다.

즉 韓赤側은 事業의 対象을 離散家族의 切実한 苦痛을 먼저 덜어준다는 点에 둔데 比해 北赤側은 그 範囲가 莫然한 〃親友〃까지 늘고나와 事実上 南北同胞 全体를 対象으로 한다는 内容이었다. 또 事業内容에 있어서도 韓赤側은 赤十字活動의 基本原則과 国際赤十字의 事業慣例에 비추어 適切한 項目을 合理的 順位에 따라 提示한데 反해 北赤側은 赤十字의 事業目的으로서는 到底히 納得할 수 없는 말하자면 〃自由往来〃와 같은 非現実的인 그리고 또 赤十字로서는 손댈수 없는 項目까지도 包含한 提案과 主張을 되풀이한 것이다.

韓赤側은 赤十字活動의 原則이 人間的苦痛 中에서도 가장 緊急한 苦痛부터 救済하는데 있다는 点을 強調하고 말하자면 〃親友〃問題까지 解決할 수 있는 与件이라면 구태여 赤十字会談까지 열 必要도 없

다고 말했으며, 또 韓赤側이 提示한 〃家族〃은 核家族은 勿論 가까운 親戚까지도 包含한 概念으로서 理解되어야 한다고 始終 忍耐와 誠実한 態度로 説得했던 것이다.

그後 韓赤側은 第11次 予備会談때에는 南北会談을 主導하고 있는 立場을 考慮하여 이때까지의 包括的 家族概念에서 親戚概念을 分離시켜 이것을 独立項目으로서 認定한 6개項의 第1次 修正案을 提出하였다. 이에対해 北赤側은 第12次 会談에서 그들이 이미 提案해 둔 事業対象에서 親友間의 書信交換 및 相互訪問등을 削除하고 그밖의 問題를 增加한 修正案을 내 놓았다. 이로써 이때까지 論難의 対象이 되어온 事業対象은 結局 〃家族〃 및 親戚에 限하기로 諒解가 成立되었다.

事業의 対象에 関해 이와 같은 合意를 본 다음의 予備会談에서의 論争点은 当然히 事業内容으로 옮겨졌다.

즉 韓赤側 主張인 〃相互訪問〃과 北赤側 主張의 〃自由往来〃가 深刻한 対立을 보였다. 여기서 韓赤側은 赤十字事業은 人道主義的 目的만에 限할 것이며 北赤側이 主張하는 〃自由로운 往来〃는 원래의 赤十字의 人道的 目的을 훨씬 넘어선 問題임을 指摘하고 赤十字事業의 原則과 性格에 適合한 〃相互訪問〃도 議題속에 넣어야 한다고 強調했다.

한편 北赤側은 自由往来의 論拠로서 所謂 〃大衆的事業〃을 들고 나와 赤十字의 主管과 周旋없이도 事業을 成就해야 한다는 矛盾된 主張을 했다. 그러나 韓赤側 国際的 事業慣例가 보이고 있는 赤十字 尋人事業 方式에 따라 合理的으로 認定된 離散家族의 生死

및 所在의 確認에서 부터 이들의 再結合에 이르는 項目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赤十字의 主管과 責任下에 展開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強調하고 이와 같은 赤十字의 主管과 責任을 度外視한 〃自由往来〃의 項目을 除外하고는 両側의 提案에 本質的인 差異가 없으니 우선 共通点부터 論議하기를 促求하면서 드디어 1年 가까운 膠着에서 벗어났다. 그 結果 才17次 予備会談에서 双方은 才2次 修正案을 提出했다.

먼저 우리側의 修正案은

① 別個項目으로서 設定한 事業対象의 〃親戚〃을 各項의 〃家族〃과 함께 併記하고

② 〃相互訪問〃 대신에 〃相互訪問을 為한 自由往来〃로 한것이고, 北赤側의 修正案은 〃自由往来〃를 削除하고 그 대신 〃自由로운 訪問〃으로 고친것이었다. 韓赤代表団은 双方이 各各 提出한 새 修正案에 依해 双方의 基本的 見解差는 거의 調整되었다고 前提하면서 남은 問題는 議題의 文案을 어떠한 形式과 用語 및 順序로 整理하느냐 하는 形式上의 問題이기 때문에 이를 為한 実務的인 作業이 必要하다고 強調했다. 이에 北赤側도 同意함으로써 結局 才19次의 予備会談(2月17日)에서 双方은 〃本議題 文案整理를 為한 実務会談〃을 構成할것에 合意를 보았다. 그리하여 72年 2月21日에서 6月5日까지의 13次의 実務者 会議가 予備会談에서 써 온 板門店 中立国 監視委 会議室에서 열려 双方의 代表들은 虚心坦懐한 雰囲気속에서 〃相互의 異見을 接近시키기 為해 誠意있는 努力을 傾注〃한 結果 文字 그대로 難産의 本会談 議題

에 드디어 合意를 보게된 것이다. 이에 따라 6月16日 다시 公開로 열린 才20次 予備会談 全体会議에서는 이를 確認했다.

이날 双方代表는 人事말에 뒤이어 合意文書를 交換함으로써 71年 10月27日의 才6次 予備会談 以来 14次의 全体会議와 13次의 実務会議를 通해 迂余曲折의 本会談 議題가 드디어 確定을 보게되었으며 그 全文은 다음과 같다.

①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의 住所와 生死를 確認하여 알리는 問題

②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間의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로운 再会를 実現시켜주는 問題

③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과 親戚間의 自由로운 書信의 交換을 実施하는 問題

④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의 自由意思에 따른 再結合 問題

⑤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한 問題

才4節 앞으로의 問題와 展望

上述한바와 같이 予備会談 討議事項中 南北双方에게 가장 重要한 本質問題라 할 수 있는 本会談 議題가 長期間의 論難끝에 드디어 妥結됨으로써 가장 危険視되었던 1次의 難関은 克服된 셈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1年間의 予備会談에서 北韓側의 基本的인 立場을 看破할 수가 있었다. 그들은 始終一貫 그들의 偽装된 平和統一論을 들고나와 会談進行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들이 人

道的 次元의 赤十字会談과 앞으로 推進될 赤十字 事業을 그들의 政治的 目的 達成의 한 手段으로 利用하려 들고 있으며 그것은 곧 그들의 基本路線인 赤化統一의 一手段으로서 南北対話를 戦略視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本会談에서 그들의 馬脚을 드러내기 始作했으며, 甚之於 서울会談에서의 尹基福의 演説에서는 露骨的인 政治宣伝의 道具視하고 있는 底意를 露出시켰다. 그나 그뿐이랴 이들은 애초의 期待와는 反対로 南北 往来接触이 오히려 그들의 閉鎖体制에 威脅을 加하는 逆機能的 結果에 唐慌하여 所謂 〃社会的 法律的 障害의 除去〃 云云하는 생트집으로 南北赤十字会談을 膠着状態로 몰아 넣고는 그 責任을 我側에 転嫁하기 為한 宣伝에만 吸吸하고 있다.

그들에게 協商은 形態를 달리한 闘争이라는 것은 그들의 上典인 中共이나 소聯의 戦術에서도 엿볼 수 있지만 北側은 이에 한술 더 떠서 所謂 〃了解 解説 要員의 派遣〃이라는 公公然한 強奪的 要求를 서슴치 않는 態度를 取함으로써 全人類의 良心에 正面으로 挑戦해왔다. 北側의 이러한 破廉恥한 생트집은 会談膠着의 責任이 저들에게 있다는 全世界 良識의 判断에도 어쩔 수 없이 拒逆하지 않으면 안될 〃事情〃이 있다는 것을 示唆하는 것이다. 그 事情이란 다름아닌 그들 体制의 変質 崩壊 危険性인 것이다.

이제 우리는 分断母国으로서의 雅量과 民族統合의 主導的 立場에선 冷徹한 遠観으로써 다시 한번 忍耐와 誠意를 다하여 北側을 会談의 場에 誘導해 들여서 南北으로 흩어진 1千万 同胞의 基源을 풀어주기 為해 最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会談이나

協商은 相対가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努力해도 北側이 理性을 되 찾아 民族的 良心을 蘇生시키지 않는限 앞으로의 赤十字事業은 그 進展을 楽観視할 수 없을 것이며 平和統一의 基盤造成도 難関에 逢着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調節〃이 要請되지만 그 調節機構인 南北調委마저 一方的으로 中断시키고 말았으니 여기에 次元높은 某種의 作用이 要請된다。

第4章 統一政策에 미친 影響

才1節 理念과 統一

우리나라의 統一問題는 大体로 다음과 같은 두가지 次元에서 論議되어져 왔다. 그 하나는 当為로서의 統一이며 또 하나는 現実로서의 統一이다.

当為로서의 統一은 端的으로 "統一은 民族의 国土課題"라는 말로 表現되어 왔다. 韓民族의 最大의 念願은 南北으로 分断된 国土의 統一에로 集約되며 이것을 成就하기 為해서는 民族의 全精力과 叡智를 集中해야 한다는 主張이 1945年 8月 国土가 分断된 以来 오늘에 이르기까지 一貫하여 強調되어 왔다.

왜 統一이 民族의 国土課題이며 무엇때문에 統一은 이룩되지 않으면 안될 民族의 念願이 되어있는가 라는 素朴한 물음의 余地마저도 있을 수 없는 自明한 問題로 通念化되어 있다.

韓国民에게 統一은 마치 宗教的 信仰과도 같이 絶対的인 것이며 冷静한 理性的 判断의 所産이기 以前에 타오르는 民族意識의 부르짖음이며 同胞의 一体感이 그만치 뿌리깊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現実로서의 統一問題에 正面으로 부딪쳐 보면 国民을 비롯해서 政治家는 그 누구도 確信있는 解決策을 発見하지 못하며 다만 失望에 사로잡히고 만다.

이와 같은 失望感은 国土가 分断된 채 28年을 経過해 온 韓国人에게 一種의 締念이 되어 自己喪失의 状態에 빠져 들어가는

原因이 되어있는 것도 또한 事実이다. 現実로서의 統一의 어려움을 痛感하면 할수록 当為로서의 統一에의 意慾은 한층 더 強烈해진다. 그러나 그것이 冷厳한 現実的 障壁을 打破할만치 強烈하지는 못하다는 곳에 民族의 苦悩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것은 当為로서의 統一論이 아니다. 統一이 우리民族에게는 時急히 이루워지지 않으면 안될 当面의 課題라는 点을 새삼 強調하고 그러니 우리는 統一成就를 為해 蹶起해야 한다고 力說해 보았자 解決될 問題도 아니다. 現実的일 統一의 問題가 거의 不可能에 가까운 難事라면 統一을 沮害하고 있는 決定的인 要因이 무엇이며 問題点이 어디에 있는가를 再認識한 다음에 다시금 統一問題를 다룰 必要가 있다.

一般的으로는 南北은 単一民族이기 때문에 感情이나 理念, 政治制度등에 拘泥되지 않고 그것을 보다 높은 次元에서 祖国의 統一을 図謀해야 함에도 不拘하고 이를 忌避하고 있는것이 아니냐는 不満도 있다.

万一에 그것이 正論이라면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西独을 為始해서 中国, 越南등도 벌써 하나의 国家 하나의 民族으로서 再結合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実現되지 않고 있는데는 반드시 무언가 根本的인 理由가 있지않으면 안된다.

그렇다면 그 根本的인 理由는 무엇일가 새삼 말할것도 없이 그것은 南北間의 理念의 対立인 것이다.

一般的으로 理念이란 個人 또는 集団 特有의 政治 社会思想의

体系를 말하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政治理念 또는 思想이라 해도 좋다.

解放後 南北間의 理念의 対立은 共産主義와 議会民主主義 및 民族主義의 対立으로 因해 尖鋭化되었다.

지금에 와서는 이데올로기의 時代는 지나갔으며 国家利益 優先의 時代가 되었다고도 하며 "脫이데오로기"라는 말이 流行되고 있다. 이와 같은 認識은 部分的으로는 真実性이 있다. 例컨대 美·소両国의 外交는 서로 이데올로기的 差異도 不拘하고 国家利益의 追求라는 観点에서 進行되고 있다. 美国과 프랑스는 民主主義라는 共通의 이데올로기위에 서 있으면서도 서로의 国家利益에 있어서는 対立이 있다.

그러나 美소間의 平和共存이 提唱되고 美·中共의 接近이 劇的인 進展을 보이고 있다고 해서 各国이 저들의 이데올로기를 抛棄해 버린것도 아니며 또 否認하고 있는것도 아니다.

이들 諸国은 다같이 自国의 이데올로기를 固守하는 것은 当然하다는 前提下에서 서로 接触을 継続하면서 対決과 競争을 다른 한편으로는 減殺하게 버리고 있는 것이 現実이다.

一部에서 誤解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데올로기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装飾品과 같은 것이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人間의 頭脳속에만 도사리고 있는 単純한 思考는 아니다. 이데올로기는 政党의 政綱 政策으로서 또는 社会制度로서 그리고 또 革命運動의 指導原理로서 表現되는 必然的인 性質을 가지고 있다.

今日의 南北間의 制度上의 差異는 共産主義와 民主主義라는 이데올로기의 差異가 가져온 必然的 結果인 것이다.

6·25南侵에 依한 戰爭이나 金日成의 独裁体制도 그 모두가 이데올로기의 所産이다. 그것은 마치 스타린 統治下의 強制勞動 收容所나 恐怖政治등이 이데올로기의 産物인것 처럼

이미 常識이 되어있는 것이지만 民主主義의 政治理念은 相対的 世界를 土台로 하고 있다. 즉, 人間은 不完全하기 때문에 真理는 어느 特定의 個人이나 党派에 依해 独占될 性質의 것이 아니라 自由로운 思想活動과 討議過程을 通해서 探究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그 基調로 하고 있다. 그리고 政治權力 또한 어느 特定의 個人이나 政派에 独占될 경우 濫用되기 쉬우며 横暴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를 牽制하는 安全閘을 만드는 것을 鉄則으로 하고 있다. 政治権力의 独裁化를 点検하는 安全閘으로서 言論의 自由, 政治活動의 自由, 法治主義, 自由選挙등등 民主主義의 制度가 생겨났다.

이와는 正反対로 所謂 맑스·레닌主義의 이데올로기는 絶対的 世界觀을 土台로 하고있다. 現實的 世界에서의 唯一의 真理는 맑스·레닌主義 思想이고 그밖의 一切의 思想은 虚偽이고 幻想이며 反動, 欺瞞이라하여 排斥한다.

共産党은 이 〃真理〃를 正確히 把握하고 実践하고 있는 唯一의 政治集団이기 때문에 誤謬를 犯할理가 없다고 主張하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世界의 모든 現象을 正義와 不義, 빛과 어둠, 真理와 虚偽, 友軍과 敵, 善과 悪으로 両分하고 共産党에 편들지않는 者를

徹底히 排斥하며 戰術的인 妥協以外의 그 어떠한 妥協도 否定하는 것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그러기 為해 共産党이 政治権力을 掌握하면 푸로레타리아의 이름으로 徹底한 一党独裁를 断行하여 流血, 粛清, 追放, 投獄등을 無慈悲하게 敢行하여 社会를 全体主義的으로 編制해 버리는 것이다. 오늘의 北韓은 典型的인 共産主義 体制下에 있으며 共産体制 中에서도 가장 지독한 곳이라는 것은 全世界에 알려져 있다. 北韓의 当局者들이 〃祖国統一〃을 외칠때는 반드시 北韓의 金日成 体制를 韓半島 全域에 拡大한다는 것을 示唆한다.

6·25動乱은 軍事力을 가지고 韓半島 全域의 赤化侵略을 企図한 가장 뚜렷한 証拠이다.

金日成一派는 그러나 数年前부터는 平和的으로 祖国을 統一해야 한다고 떠들고 있다. 이들은 그 方法의 하나로서 두개의 案을 내놓고 있다. 그 하나는 民主主義的인 基礎위에 南北에 걸쳐 自由選挙를 実施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러한 主張은 国際宣伝과 対韓国 宣伝放送을 通해 頻繁히 提議되고 있다. 또 하나는 〃大韓民国의 赤化革命〃을 通해 平和的으로 南北을 統一한다는 것이다. 즉, 韓国에서 人民民主主義 革命을 決行하여 美軍을 몰아내고 現存政権을 顚覆시켜 〃民主主義 政権〃을 樹立한 다음 이 政権과 北韓의 〃社会主義〃 力量을 〃平和的〃으로 結合함으로써 統一을 達成한다는 것이다.

이 戰略은 近 10年前부터 体系化되어 北韓 労動党의 1党基本路線으로서 採択되어있는 것이다.

党路線은 共産主義者들에게는 生命以上의 것이기 때문에 이 두개의 案이 北韓側이 主張하는 〃平和統一案〃의 真相을 가장 適切하게 反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의 平和統一案은 그 方法 如何를 不問하고 그들의 一貫된 目標는 北韓의 共産主義 体制를 韓半島 全域에 拡張하는데 있다. 그 兵站基地는 勿論 北韓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北韓을 政治的 統一을 為한 〃革命基地〃라고 規定하고 있다. 그들은 以上과 같은 平和統一을 自主的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고 力說하고 있다.

그들이 말하는 〃自主〃란 統一問題를 外勢에 依存하지 않고 그리고 外勢의 干渉을 받지 않으며 韓国人 스스로의 힘으로 解決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金日成의 〃自主〃에 対한 解釈인것 같으나 그는 이러한 主張을 내걸고 韓国에서 美軍을 撤収시키고 大韓民国을 UN을 비롯하여 美国등의 国際的인 支援勢力에서 孤立시키는 戦略을 展開하고 있다. 7 4共同声明이 発表되는 것과 거진 때를 같이 하여 北韓側이 美軍의 撤収를 要求하는 宣伝的 攻勢를 편 것은 決코 偶然이 아니다.

흔히들 民族은 이데올로기에 앞서는 것이기 때문에 이데올로기 問題는 一旦 뒤로 미루고 統一実現을 為해 全力을 기울려야 한다고들 한다. 그러나 統一이 먼저냐 이데올로기가 먼저냐를 検討하는 것은 無意味하다.

왜냐하면 하나의 民族속에서도 이데올로기의 相異로 因해 政治闘争이 되풀이되며 最悪의 경우 이와 같은 対立이 内乱으로까지 発展한 例만도 歴史上 한두번이 아니다.

南北共同声明은 思想, 理念, 制度에 拘碍되지않고 民族의 大同団結을 図謀한다고 闡明하고 있지만 共産主義者들이 이 約束을 忠実이 지킬것을 期待한다는 것은 그들이 共産主義를 抛棄할 것을 期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것이다.

3. 2 節 韓半島 緊張緩和에는 寄与

共産主義者들은 그들 自身을 스스로 民族을 救하는 엘리트로 自処하고 있으며 그들에게 服従하지않는 者는 民族의 叛逆者 階級의 敵으로 못박고 있다.

이와 같은 状態下에서 南北을 平和的으로 統一하기 為해서는 共産主義者와 民主主義者 또는 民族主義者를 同時에 満足시킬 수 있는 새로운 思想과 制度가 없이는 안되는 것이지만 그러한 思想과 制度는 이 地上에는 없고 또 発見되지도 않았으며 앞으로 생길 可能性도 없다.

여기에 分断国家의 統一을 不可能케 하는 根本的인 難点이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難関이 가로놓여 있는데도 不拘하고 民族의 統一을 摸索하며 그것을 追求하지 않을수 없는곳에 우리 民族에게 주어진 悲劇的인 課題가 있다.

이러한 現代的인 状況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可能한 努力은 統一의 実現이 可能해 질 먼훗날에 期待를 걸면서 우선 南北間의 緊張緩和를 為해 寄与하는 일이다.

戦争으로 因해 民族이 全滅할 危険性도 있을 수 있다는 冷厳한

現実을 直視하여 積極的인 姿勢로 南北의 漸進的 接近을 꾀하면서 共同의 利益을 追求하는 것은 南北間의 이데올로기의 相異와는 関係없이 充分히 実行될 수 있는 일이다. 7 4 共同声明의 意義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럴 경우 南北間의 対決은 더욱 激化되고 思想闘争, 政治闘争같은 것은 한층 더 苛烈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共産主義者들은 共同声明같은 것도 結局은 그들의 最終目標인 韓半島 全域의 赤化를 為한 闘争의 한 方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調節委가 発足하여 政治会談이 進行되고 있다고 해서 北韓側의 立場에 変化가 일어났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短見도 類万不同인 錯覚이다.

初期에 南北이 서울 平壌을 往来하면서 서로가 微笑会談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에 暗惑되었던 一部層도 8·28 以後의 오늘의 事態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変한것이 없다면 그것은 北韓의 基本路線이 아니라 戦略일 뿐이다.

才3節 南北関係의 展望

모처럼 韓国側의 主導로 断絶 4半世紀만에 열린 두개의 対話의 窓口도 今年 8月28日의 金英柱의 一方的인 中断宣言으로 因해 다시 닫히고 말았다.

表面的인 口実로 金大中氏事件을 트집으로 하고 있지만 其実은 그들이 韓国의 国力이나 国民의 反共思想을 過少評価하여 軽率하게 対話에 応했다가 이제 逆으로 그들이 말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継続的인 攻勢에 이들은 지금 식은땀을 흘리면서 対話中断의 責任転嫁에 狂奔하고 있지만 世界는 그들을 笑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甚之於 그들의 宗主友邦인 소련마저도 対内外的인 機会있을때 마다 그들의 억지를 牽制하고 있다.

이번의 UN総会에서도 南北의 継続的인 対話促求를 決議했으며 브레즈네프도 印度首相 간디와의 会談에서 이를 慫慂했다. 北韓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이러한 世界潮流에 끝까지 逆行할수는 없으며 또 그러한 짓은 勿論 없다.

그러나 南北対話에 対한 그들 나름의 그간의 中間評価는 그들 体制에 큰 危険要素로 登場해 있다. 여기에 그들의 苦悩와 矛盾이 있다. 바라건데 金日成은 여기서 民族의 悲願을 저바리는 愚를 再犯하지말말고 一大覚醒과 民族의 良心을 찾아 平和統一을 為한 対話의 窓口를 다시 열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懇切하다. 客観的으로는 그들은 언젠가는 되돌아 서 올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肯定的으로 期待하면서 忍耐와 誠実로써 그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면서 民族的인 努力을 傾注해야 할 것이다.